

FTAAP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 상 현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원)

1. FTAAP 논의 배경 및 연왕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다<그림 1 참조>. APEC¹⁾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창설이라는 목표로 출범하여 지난 27년간 역내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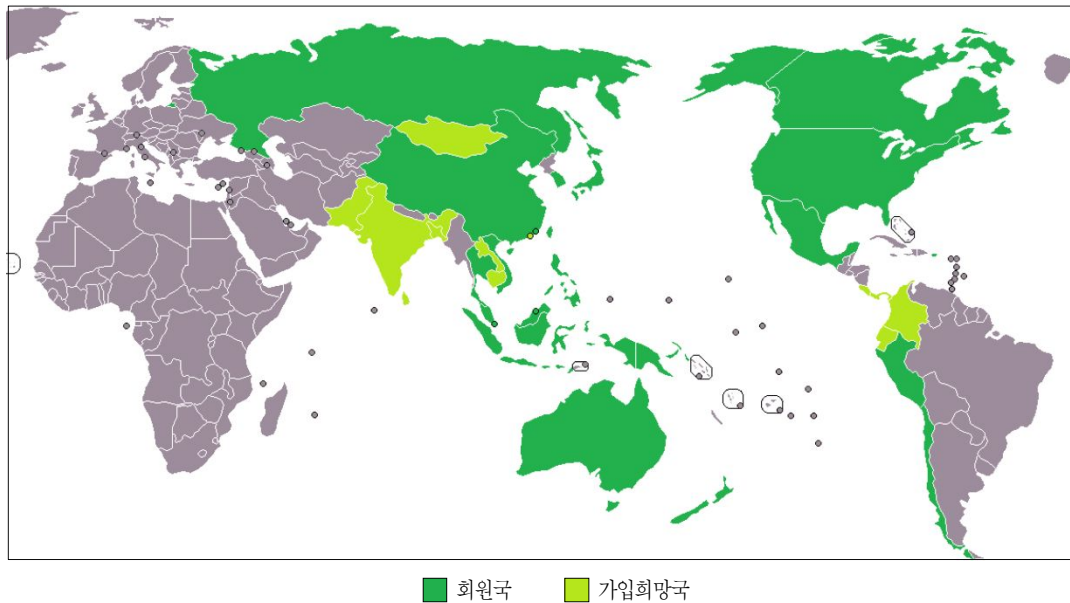
특히 1993년부터 APEC은 각 회원국들의 정상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활동에 합의하고 이행해왔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실천이라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FTAAP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4년 제2차 APEC 기업인자문회의(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FTAAP가 제안된 배경은 DDA 타결이 불투명해지고, 역내외 지역경제

* (shlee@krei.re.kr), (crystalism14@krei.re.kr).

1) APEC은 환태평양지역의 21개 회원국들이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성한 협력체임.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대만, 홍콩, 중국,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 베트남임.

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WTO plus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역내 FTAs/RTAs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관점 외에 역내 ASEAN+3 FTA²⁾, ASEAN+6 FTA³⁾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진전되면서 태평양을 기준으로한 동서 양분에 대한 미국 및 비아시아 회원국들의 우려가 FTAAP 논의가 공식화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 APEC 회원국 분포



자료: wikipedia 자료를 가공함.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장기적 차원에서의 FTAAP 추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FTAAP는 본격적으로 APEC의 정책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제15차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각료들로부터 지역경제통합 강화(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장기적인 목표로 FTAAP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2007년 정상선언문에는 기초적인 단계로서 FTAAP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매년 정상들의 합의에 의하여 FTAAP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2) ASEAN+3: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3) ASEAN+6: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2008년 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2009년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창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010년에 정상들은 FTAAP로의 경로(Pathways to FTAAP)를 발표하고 FTAAP 실현화를 위한 견고한 과정들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FTAAP의 실현은 역내 논의 중인 ASEAN+3 FTA, ASEAN+6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의 지역협정들의 기반 위에서 이들을 포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이후 몇 년간 APEC에서는 FTAAP의 실현을 위한 다음 세대의 무역과 투자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국인 중국의 주도하에 FTAAP의 실현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 방안을 담고 있는 FTAAP 실현에의 APEC 기여를 위한 베이징 로드맵(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을 승인하였다. 본 로드맵에는 FTAAP의 실현을 위한 각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와 역내 RTAs/FTAs⁴⁾의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애초에 FTAAP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인하여 제기되었는데, TPP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부터는 이에 대한 견제 수단 중 하나로 오히려 중국이 FTAAP 추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FTAAP 실현방안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2016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2. FTAAP의 교역규모

<표 1>은 APEC 회원국의 전체 교역 중 APEC 역내 교역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역내 교역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역내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멕시코, 필리핀 등은 수출입 부문에서 역내 비중이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수출부문에서는 대만, 수입부문에서는 파푸아 뉴기니와 베트남도 8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APEC의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등도 수출입부문에서 60% 이상의 역내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도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72.9%의 수출과

4)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65.3%의 수입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 회원국은 역내 교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APEC 회원국의 전체 교역 중 APEC 비중

단위: %

국가	수출			수입		
	2007	2011	2015	2007	2011	2015
호주	71.6	79.5	79.8	70.5	68.9	72.0
브루나이	95.0	93.6	87.8	86.0	70.6	81.0
캐나다	87.4	85.5	87.6	78.1	75.9	80.6
칠레	57.3	63.4	67.2	52.6	55.5	59.7
홍콩	80.0	80.4	80.3	87.3	84.3	86.5
대만	82.4	83.5	86.8	73.6	72.2	77.3
중국	63.8	61.2	63.8	63.4	56.9	59.7
인도네시아	73.6	73.7	69.1	72.6	77.7	77.7
일본	74.2	76.1	77.8	64.8	65.2	70.0
한국	67.9	69.9	72.9	65.2	61.8	65.3
말레이시아	75.7	74.9	76.5	77.9	76.8	76.9
멕시코	87.6	86.4	88.5	81.0	82.8	82.8
뉴질랜드	69.6	70.4	72.5	75.5	72.5	73.2
파푸아뉴기니	49.5	53.7	57.2	93.2	92.7	92.6
페루	57.5	54.1	58.4	50.7	58.4	65.7
필리핀	80.0	83.0	82.9	77.2	78.7	81.2
러시아	12.2	17.5	22.9	31.8	28.7	38.1
싱가포르	77.4	75.1	78.2	72.3	65.5	72.6
태국	69.2	68.3	68.2	68.6	66.9	70.9
미국	59.9	60.4	62.2	63.3	62.9	67.6
베트남	72.1	69.0	68.7	83.8	82.5	86.1

자료: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를 가공함.

<표 2>는 APEC 회원국의 전체 농산물 교역 중 APEC 역내 교역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싱가포르와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내 농산물 교역비중은 40%를 상회하고 있어 회원국 간 역내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는 농산물 수출입 부문에서 역내 비중이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농산물 수출부문에서

는 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도 7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농산물 수입부문은 평균 55.9%로, 수출부문보다 역내 의존도가 낮으며, 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역내 수입 비중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전체 농산물 수출 중 83.8%의 농산물을 APEC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 수입 중 55.5%를 APEC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표 2 APEC 회원국의 전체 농산물 교역 중 APEC 비중

단위: %

국가	수출			수입		
	2005	2009	2013	2005	2009	2013
호주	72.5	71.0	71.4	54.6	54.9	59.9
브루나이	—	—	99.7	—	—	83.9
캐나다	84.5	75.6	81.5	71.2	73.4	74.5
칠레	54.2	53.7	56.5	14.5	17.0	29.0
홍콩	82.8	86.4	81.2	69.8	61.8	59.5
대만	71.8	66.3	68.1	52.2	58.2	50.8
중국	88.7	88.2	88.9	69.4	72.0	60.5
인도네시아	50.2	46.4	45.6	49.2	51.1	45.9
일본	88.7	88.4	86.2	67.8	66.0	62.9
말레이시아	52.5	53.1	51.5	54.9	59.0	54.7
멕시코	88.7	85.8	85.1	86.7	87.3	86.4
뉴질랜드	52.8	50.2	60.2	28.7	31.7	40.6
파푸아뉴기니	—	—	—	—	—	—
페루	42.4	41.9	44.9	35.7	46.0	41.6
필리핀	70.3	72.1	75.5	60.7	60.7	69.3
한국	84.3	79.2	83.8	61.9	60.7	55.5
러시아	3.4	3.1	4.5	14.8	16.8	14.4
싱가포르	70.2	72.7	75.0	57.4	58.5	56.3
태국	72.8	68.6	70.4	44.3	47.5	47.1
미국	70.1	72.5	72.7	52.1	55.1	56.6
베트남	59.6	60.5	63.9	67.2	69.6	67.9

주: 브루나이와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농산물 교역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일부 생략함.
 자료: FAOSTAT(faostat3.fao.org).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중 APEC 회원국에 대한 교역 비중은 <표 3>과 같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본의 경우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교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부문에서는 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도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부문에서는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이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APEC 회원국 중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비중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 외에도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 대한 농산물 수출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에 우리나라 제1의 농산물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007년에 비해 감소하며 시장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EC 수입부문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07년에 비해 APEC 역내 수입 비중이 약 5% 감소하였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칠레, 대만,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전체 농산물 교역 중 대 APEC 회원국 교역 비중

단위: %

국가	수출			수입		
	2007	2011	2015	2007	2011	2015
호주	2.7	1.5	2.5	10.5	9.3	8.0
브루나이	0.0	0.0	0.0	0.0	0.0	0.0
캐나다	1.1	0.8	1.8	3.0	5.7	2.6
칠레	0.1	0.1	0.1	1.5	2.4	2.9
홍콩	5.6	5.1	5.7	0.1	0.0	0.1
대만	4.1	4.4	4.2	0.3	0.4	0.6
중국	11.6	17.0	17.2	19.2	13.8	14.7
인도네시아	2.4	2.1	2.4	2.5	3.2	3.6
일본	25.5	25.6	19.1	1.6	1.6	1.7
말레이시아	0.8	1.6	1.5	3.7	2.8	2.3
멕시코	0.1	0.2	0.3	0.3	0.3	0.3
뉴질랜드	0.6	0.5	0.6	5.0	3.6	2.7
파푸아뉴기니	0.0	0.0	0.0	0.1	0.1	0.1

(계속)

국가	수출			수입		
	2007	2011	2015	2007	2011	2015
페루	0.0	0.0	0.1	0.1	0.2	0.3
필리핀	1.7	1.7	2.2	2.1	1.8	1.9
러시아	9.5	4.4	2.1	1.2	0.9	1.4
싱가포르	1.0	1.5	1.8	0.2	0.3	0.5
태국	0.6	2.3	1.2	1.9	2.9	2.7
미국	11.9	7.8	10.3	22.0	26.0	23.2
베트남	1.6	4.0	6.1	0.9	1.5	2.3
총계	80.9	80.6	79.2	76.2	76.8	71.9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3. FTAAP 실현의 잠재적 방안⁵⁾

FTAAP의 실현 경로 중 가장 주목받는 방안은 기존의 RTA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두 협정 모두 APEC 회원국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회원 수가 많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높아 규모면에서도 다른 RTA에 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4 TPP, RCEP, FTAAP의 경제 규모

	TPP	RCEP	FTAAP
회원국 수	12	16	21
전 세계 GDP 대비 비중 (%)	38	29	58
전 세계 수출규모 대비 비중 (%)	24	30	46

자료: Tran and Heal(201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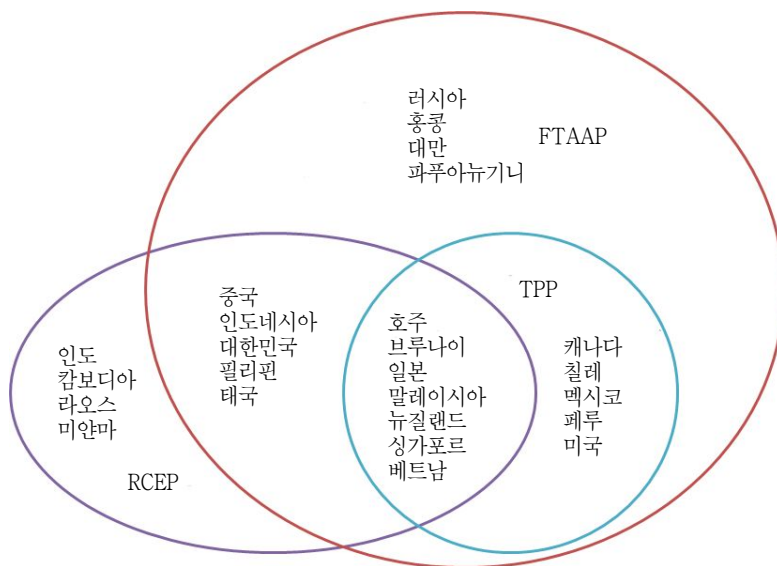
TPP와 RCEP은 그 규모가 크고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서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TPP는 모든 참여국들이 APEC의 회원국들이다. TPP의 경우 P4국가들로 불리는 브루나이, 칠레,

5) 본 절은 Tran and Heal(2014)을 요약, 재편집,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의 협력체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12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반면, RCEP의 경우 ASEAN 10개국과 6개의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체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는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 등 4개 국가는 APEC회원국이 아니다. FTAAP의 경우 APEC의 21개 회원국 간의 논의이므로 향후 RCEP의 확장형으로 진행된다면 이들 4개 국가에 대한 조치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APEC회원국들 중 러시아,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는 TPP나 RCEP 어디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그림 2 참조>.

그림 2 TPP, RCEP, FTAAP 회원국 관계도



자료: Tran and Heal(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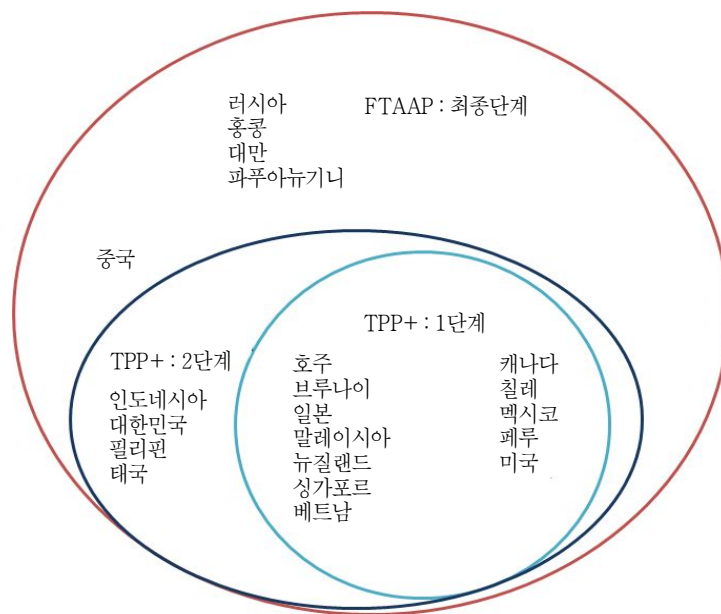
TPP와 RCEP의 눈에 띄는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자유화의 정도이다. 여기서 자유화라 함은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상품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TPP의 경우 2015년 10월에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되었는데, 노동 및 환경 기준, 지적재산권, 투자경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의 분야에 있어 자유화의 정도가 현재의 WTO의 규범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CEP은 역내 ASEAN내 저개발국을 비롯하여 인도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는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TPP와 같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과 TPP간 회원국의 중복성과 역내 회원국들 간의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감안할 때, TPP와 RCEP간 조화와 일치를 위한 작업이 FTAAP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AP의 실현에는 세 가지의 경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TPP의 확장, 둘째는 RCEP의 확장이며, 마지막은 새로운 융합된 형태이다.

우선 FTAAP의 실현 경로 중 하나는 TPP의 확장이다. TPP는 이미 타결되어 각 국가의 비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TPP에는 RCEP의 16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4개 국가가 향후 TPP를 참여하고 싶다고 표명한 상태이다. TPP가 발효되고 향후 추가적인 가입희망국들의 합류가 이어진다면 FTAAP 실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FTAAP 실현 경로: TPP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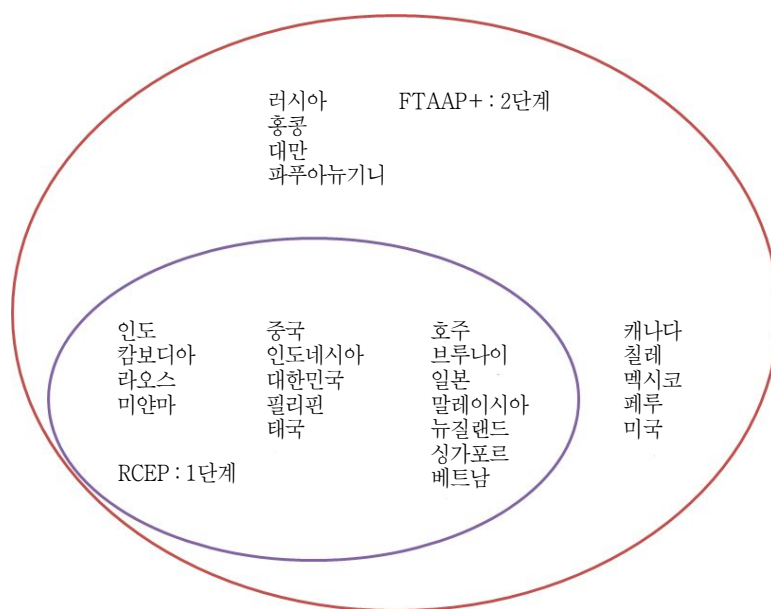


TPP 협상이 타결이 되고 2015년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수출경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TPP 협정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즉, 이번에 타결된 TPP 협정문의 내용은 TPP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 또한 FTAAP가 TPP 규범을 중심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중 하나이다. 다만, TPP의 확대가 FTAAP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는 가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중국은 투명성과 정

부개입과 관련하여 TPP의 규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Schott 2014>, 이에 중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RCEP을 추진 중에 있다<Hong 2014>. 하지만 최근 중국도 TPP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2013년에는 미·중 정상회의에 앞서 TPP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으며, 2014년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TPP 참여에도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AAP 실현의 또 다른 방안은 RCEP의 확장이다<그림 4 참조>. 다만, RCEP의 경우 현재 협상 참여국들이 ASEAN과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RCEP에는 APEC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있어 FTAAP 실현의 수단으로 RCEP확장형은 TPP확장정보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FTAAP가 추구하는 WTO-plus적인 무역자유화를 RCEP의 확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FTAAP 실현 경로: RCEP 확장형



따라서 최근 FTAAP의 실현 가능성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TPP와 RCEP의 융합된 형태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FTAAP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이다. 융합된 형태에도 세 가지 정도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TPP의 높은 수준의 규범 중 일부와 아시아 내 선호되는 낮은 규범 중 일

부를 병합하여 FTAAP의 규범으로 정립하는 방식이다. 본 형태는 TPP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TPP 규범을 따르고 그 외 회원국들에게는 RCEP과 TPP의 규범을 조화시켜 적용하는 것이다<Schott 2014>. 두 번째는 회원국들에게 RCEP의 규범이나 TPP의 규범이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FTAAP 규범을 선택하도록 하되, 국가별로 적용시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는 무역자유화 정도가 가장 높은 규범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식이다<Petri et al, 2014>.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FTAAP 규범을 낮은 수준으로 수립한 후 FTAAP를 출범하고, 계속해서 수정해나가는 방식도 가능하다<Petri et al, 2014>.

4. 시사점

작년 DDA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의 실패, TPP 타결 이후 각국의 국회비준의 난항, 국가 간 이견대립으로 RCEP 협상의 난항 등으로 현재 국제통상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는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TPP나 RCE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고, FTAAP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APEC은 매년 정상들이 모여서 1년의 성과를 보고받고 다음 해의 과제를 지시해나간다는 점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FTAAP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PEC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역내 무역 투자 및 투자자유화의 실천이라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0년에는 FTAAP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지금부터라도 FTAAP 실현에 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FTAAP의 실현에 APEC 출범 주도국이자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실현방안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의 연구결과가 보고된다. 본 보고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FTAAP의 추진 방안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FTAAP의 실현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핵심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Hong, Z. 2014. China's Evolving Views on the TPP and the RCEP ISEAS perspective, No. 28.
- Petri, P., M. Plummer and F. Zhai. 2014.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In *New Directions i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Tang, Guoqiang and Peter A. Petri, eds. Honolulu: East-West Center.
- Schott, J. 2014.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Projecting the Path Forwar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from www.iie.com/publications/papers/schott201404APEC-FTAPP.pdf.
- Tran, D. and A. Heal. 2014.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Potential Pathways to Implementation Trade Insights Issue No.4, United Nations ESCAP.

참고사이트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 Wikipedia.
- FAOSTAT(faostat3.fao.org)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